

# 고구려 와당(瓦當)문양을 응용한 문화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이 미 석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Products with Applied Koguryo Wadang Pattern

Mi-Seok Lee

Lectur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 Nam University

(2006. 3. 24 투고)

### ABSTRACT

This is a study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Cultural Products with Applied Koguryo Wadang Patter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in developing unique Cultural Products which combine traditional Korean images with modern feel by utilizing Koguryo Wadang patterns.

The among Korean traditional patterns which implicit the sense of beauty and modeling, chose and investigated the Wadang patterns of the Koguryo. And from it, studied about the original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guryo Wadang patterns. In this characteristics of the Wadang pattern, the representative lotus design pattern was based and reorganized to fine the probability of the modern expression using traditional patterns.

After design plans were made for each works, natural dyes were used to dye(dip dyeing, printing) the fabrics(cotton:Kwang-mok) by theme.

Approximately 16 pieces of Cultural Products that can be used in daily life were created using Koguryo Wadang patterns, including Traffic or credit card cases, Name card cases, Pouches, CD cases, Cushions, Bags, Purses, Vest, Muffler.

In addition, the increased quality of the products will be a competitive edge in the world market where products compete with no national bounds.

Key words: Wadang pattern(와당문양), Cultural Products(문화상품)

## I. 서론

우리는 지난해 '2005 부산 APEC 정상회담'과 '2002 한·일 월드컵', '2002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특히 '2005 부산 APEC 정상회담'에서는 각 나라 정상들이 우리의 한복(HANBOK)인 두루마기를 착용하여 우리 옷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드라마 '겨울연가', '대장금' 등의 한류열풍은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국가 이미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이고 있다.

이렇듯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관광객과 내국인들의 외국여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의 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상품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상품은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상품으로 홍보되고 판매되기보다는 이미지로 판매되는 고부가가치의 상품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적인 문화상품은 제품의 실용성 또는 심미성과 함께 우리의 문화와 정서, 한국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이미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한국적인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한국적인 것인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1번지'인 인사동에 전통문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기사가 있었다. 인사동 관광기념품 가게에 중국제품이 넘쳐나고 있어 '한국'이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첫 '문화지구'인 인사동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국적불명의 값싸고 조악한 외국제품을 구입해 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구려 와당 문양을 침선소품에 응용함으로서 현대인의 감각에 맞으면서도 우리나라 전통의 이미지가 담긴 독창적인 문화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고구려 와당 문양 중에서, 와당문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연화문 와당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고구려 와당문양과 문화상품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둘째, 고구려 연화문 와당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16가지 연화문 와당을 선별하여 120명의 20~40대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하였다.

셋째, 설문조사 선호도 순으로 연화문 와당 5가지를 도식화 하여 실크스크린 작업을 했으며,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였다.

소재는 면섬유(광목)을 이용하여 천연염색(침염, 날염) 하였다.

## II. 고구려 와당(瓦當) 문양

### 1. 고구려 와당(瓦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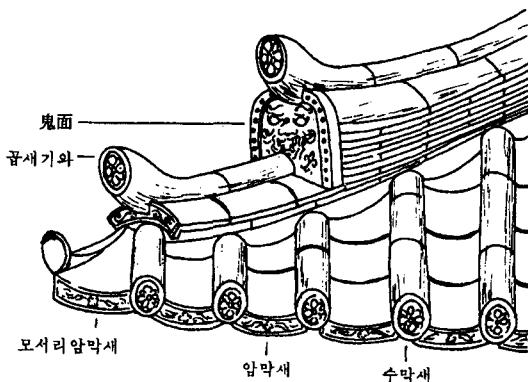
목조건물의 지붕에 기와를 잇는 풍습은 동아시아 건축의 주요한 특색으로 고구려에서는 독자적인 의장과 제법을 사용하여 기와를 제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기와의 무늬는 표현이 단순 강직하며 대체로 붉은색을 띠고 있어 백제·신라의 것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sup>1)</sup>

와(瓦)란 순수한 우리말로는 "새"라는 말로 "디쇠", "날디쇠"라 하여 구운것과 굽지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불렀다.<sup>2)</sup> 와당(瓦當)이란 기와의 마구리<sup>3)</sup>를 말하는것으로 건축물의 지붕면을 펴서 지붕을 잇는 것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기와지붕은 먼저 암키와와 수키와로 이어 덮고 처마 끝에 와서 각기 끝막음을 하게 되는데, 그 막음 기와를 암막새와 수막새라 부른다. 그 막새의 마구리에는 양각(陽刻), 음각(陰刻)으로 각종 문양이 새겨져서 그 문양이 새겨진 막새를 와당(瓦當)이라 부른다.<sup>4)</sup>〈그림1〉

고구려 초기의 기와는 주로 집안(集安)지역의 성과 무덤에서 출토되며, 이 시기의 기와는 대부분 환원염(還元焰)으로 구워져 회색이나 회흑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sup>5)</sup>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고구려 기와는 큰 변화를 맞이하는데, 평양의 여러 유적에서 암, 수키와, 막



〈그림 1〉 와당의 명칭과 위치

새, 치미 등 다양한 종류의 기와가 출토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양에 있어서도 연꽃무늬, 인동무늬, 도깨비얼굴무늬, 기하학무늬 등이 다양하게 표현된다.

또한 집안지역 출토의 기와 색상과는 달리 평양 지역 출토의 기와는 적갈색계를 띠고 있어 시대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6)</sup>

기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구려적인 특징을 강하게 지닌 기와가 제작된다.

## 2. 고구려 연화문 와당의 종류와 형태

고구려 와당 문양은 연화(蓮花), 인동(忍冬), 초화(草花), 귀면(鬼面), 기하학 무늬 등 다양한 문양을 나타내고 있으나, 암막새는 당초문(唐草紋)이 수막새는 연화문(蓮花紋)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양식적인 변화도 가장 풍부하다.

연화는 옛날부터 생명의 창조, 번영의 상징으로 애호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연꽃 씨앗의 강한 생명력 때문이다.<sup>7)</sup>

연화가 와당에 도입된 까닭을 살펴보면, 수중(水中)에서 성장하므로 화재를 피한다는 의미를 지닌 일종의 주술관념에서 기인한다<sup>8)</sup>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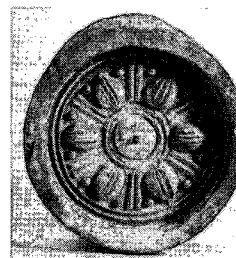
또한 연화가 물이나 진흙속에서 자라나지만 진흙에도 물에도 물들지 않고 깨끗이 펴워서 각 사찰이나 궁전의 와당에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구려에서는 불교가 전래된 4세기 후반부터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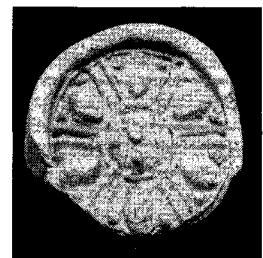
꽃무늬가 장식된 수막새가 출현하게 되는데<sup>9)</sup>, 연화는 불교에서 광명(光明), 생명(生命), 창조(創造)를 상징한다.

연화문의 기본구도는 대개 3부분으로 이루어지는 데 중심에 자방(子房), 화관(花瓣)을 들린 뒤 주연(周緣)을 돌렸다.〈그림 2~3〉

고구려 와당에서 보이는 연화문의 특징은 자방이 단순하고 형태가 대담하며 꽃잎의 뿌리가 둥글고 끝이 뾰족하게 도드라지도록 표현하여 그 양식이 매우 날카롭다.<sup>10)</sup>



〈그림 2〉 연화문와당  
(출처:新羅瓦塲,  
p.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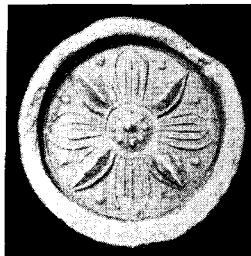
〈그림 3〉 연화문와당  
(출처:경희대박물관)

집안에서 발견되는 4세기의 와당〈그림2〉은 대개가 수막새로 지름이 커지고 주연부가 높이 돌출되었으며 무늬로는 연봉오리가 주류를 이룬다. 동근원을 구획선으로 구획하고 세 꽃잎으로 구성된 아직 피지 않은 연봉오리를 매우 양감 있게 사실적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엑센트를 주기위해 작은 원형돌기를 연꽃과 그 주변에 규칙적으로 배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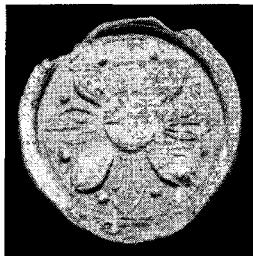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A.D. 427) 이후 부터는 주연부가 낮아지고 크기도 집안 것보다 작아져서 일반적 크기가 약 20cm 내외가 된다.

또한 막새의 면을 구획한 선이 점차 사라지고 변형된 형태〈그림 4~7〉로 여러 무늬가 새롭게 나타나는데,<sup>11)</sup> 다양한 문양과 함께 양감이 더욱 강해진 연봉오리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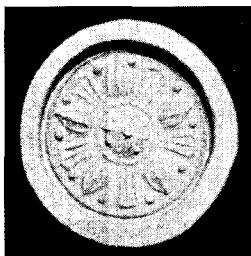
〈그림 4~6〉은 평양 천도 이후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형식이다. 수막새 연화문의 색조는 대부분 적갈색을 띠고, 연판의 수가 4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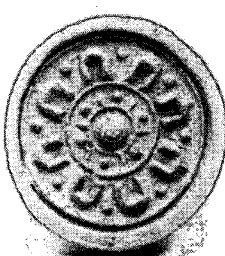
〈그림 4〉 연화복합문와당  
(출처: 경희대박물관)



〈그림 5〉 연화복합문와당  
(출처: 경희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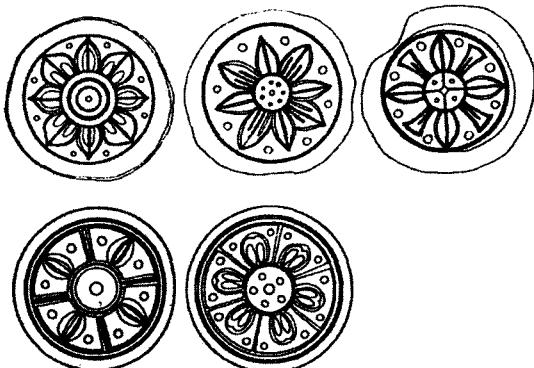
〈그림 6〉 연화복합문와당  
(출처: 경희대박물관)



〈그림 7〉 연화기하학문와당  
(출처: 경희대박물관)

설문조사 선호도 순으로 고구려 연화문와당 5가지를 도식화(그림 8)하여 실크스크린 작업을 했으며,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화상품으로 개발된 디자인은 총 16가지로 카드집, 명함집, 파우치, CD케이스, 지갑, 가방, 쿠션, 조끼, 머플러 등이다.



〈그림 8〉 디자인개발에 사용된 5가지 고구려 와당문양

10엽까지 매우 다양하며, 연봉오리를 중심으로 귀문, 인동문, 기하학 무늬 등과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강경함을 보여주면서<sup>12)</sup> 고구려의 독자적인 양식의 성립을 보게 된다.

이렇듯 고구려 연화문 와당은 시대적인 차이를 보이며, 다양한 변화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연화문계 와당은 삼국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는 고구려의 연화문 와당에서는 독특한 내구의 분할과 도안화되고 기하학적인 화문형식으로 세련미 넘치는 고구려인의 미의식을 엿볼수 있다.

### III. 문화상품개발

#### 1. 문양선정 및 디자인

본 연구에서는 고구려 연화문와당 중에서 고구려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16가지 연화문와당을 선별하여 20~40대 성인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sup>13)</sup>를 하였다.

#### 2. 소재 및 염색기법

본 연구의 문화상품제작에 사용한 소재로는 한국 전통의 질감을 느낄수 있으며 실용적 소재인 광목<sup>14)</sup>을 이용하였으며, 염색기법으로는 침염(浸染)과 날염(捺染)을 하였다.

##### 1) 침염(浸染) 기법<sup>15)</sup>

본 염색에 사용한 염재로는 괴화, 꼭두서니, 밤껍질, 소목, 오배자, 자초, 정향, 양파껍질 등이며 매염제로는 백반( $\text{Alk}(\text{SO}_4)_2 \cdot 24\text{H}_2\text{O}$ )과 철( $\text{FeSO}_4$ )을 이용하였다.

염재의 양은 괴화, 소목, 정향, 양파껍질, 오배자, 자초의 경우 광목 무게와 동일하게 사용했으며, 자초는 광목 무게의 2배, 꼭두서니와 밤껍질, 양파껍질은 광목 무게의 3배를 사용하였다. 매염제로 이용한 백반은 직물의 5%, 철은 직물의 1%를 사용하였다.

##### (1) 정련과 표백

광목은 처음 구입시 빽빽하며 열은 베이지 색상

을 띠어 정련과 표백을 하였다. 광목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풀, 지방, 납 등)을 제거하기 위해 스테인레스 통에 물과 세제, 광목을 넣고 30분간 끓였다.

광목에 세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여러 번 수세를 한 후, 표백제를 풀어놓은 통에 수세한 광목을 넣고 약 1시간 정도 놓아 두어 하얗게 표백하였다.

### (2) 염액추출

자초를 제외한 모든 염재는 물에 끓여 염액을 추출하였다. 염재를 깨끗이 쟁어 5L의 물에 넣고 20~30분 정도 끓인 후, 5분 정도 놓아두어 염재가 가라앉은 후 광목을 깔고 염액을 내렸다. 다시 물 5L를 넣고 끓인 다음 2차 추출액을 얻어 처음 염액과 혼합하여 염액을 얻었다.

#### \*자초 염액 추출

자초는 알코올에 의해 염액을 추출하였다. 자초를 용기에 넣고 자초가 잡길 정도의 메탄올을 부은 후 가끔 뒤적거려 주면서 30분간 놓아두었다. 30분 후 보라색의 염액이 추출되어 있었는데, 다른 용기에 염액을 따라놓고 다시 메탄올을 부어 30분 경과 후 얻어진 염액과 처음 염액을 혼합하였다. 염색추출 후 광목이 잡길 정도의 증류수를 부어 잘 섞은 후 상온에서 염색하였다.

### (3) 염색방법

염색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으며, 철매염시에는 첫 번째 매염단계에서 백반 매염을 하고, 두 번째 매염 단계에서 철매염을 하였다. 염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염색(15분)→수세→매염(15분)→수세→염색(30분)  
→수세→매염(15분)→수세→건조

### 2) 날염(捺染)기법<sup>16)</sup>

날염은 안료나 염료를 가지고 천에 직접 그리거나 찍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고구려 와당문양 5가지<그림 8>를 실크스크린 판으로 제작하였다.

날염에 사용한 재료로는 천연 소목분말 5g, 호효 50g, 매염제(철) 1g, 증류수 44cc를 사용하였다.

### (1) 염료만들기

증류수 44cc에 매염제(철) 1g을 넣고 완전히 용해 한 후, 소목분말 5g을 넣고 혼합 용해하였다. 여기에 호효 50g을 넣고 잘 섞어 염료를 만든다.

### (2) 염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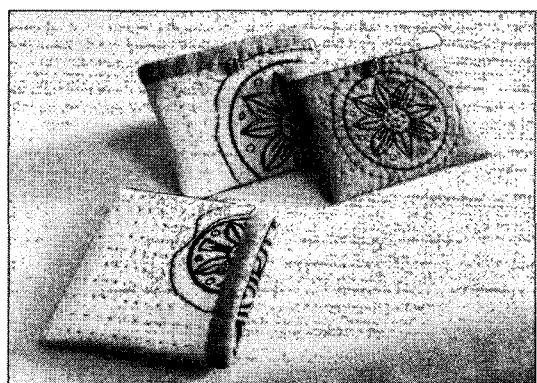
디자인 계획 의도에 따라 천을 깔고 실크스크린 판을 위에 올려놓은 후 염료를 떠놓고 스퀴지로 밀어 날염하여 건조하였다. 건조한 후에는 짐통이나 스텀기기에 넣고 30분 정도 쪐 후 수세하여 그늘에서 건조시킨다.

## 3. 고구려 와당문양을 응용한 문화상품 제작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문화상품으로는 카드집, 명함집, 파우치, CD케이스, 지갑, 가방, 쿠션, 조끼, 머플러 등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소품 16가지이다.

### 1) 와당문 카드집

카드집은 카드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로 현대인들이라면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넣어가지고 다니면 편리할 듯하다.



【작품 1】 와당문 카드집

소재: 광목(괴화, 자초, 꼭두서니 염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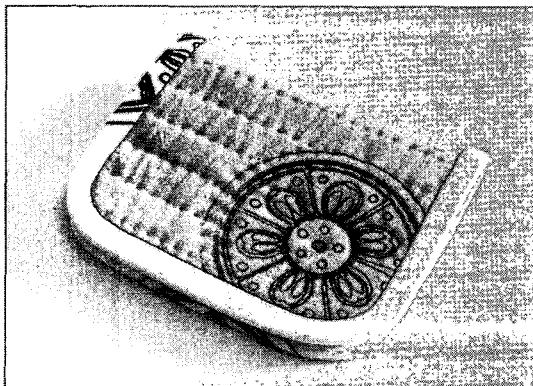
기법: 손누비 크기: 10.5cm×8.5cm

본 작품【작품 1】은 괴화, 자초, 꼭두서니로 염색한 광목을 소재로 고구려 와당 문양을 날염한 카드집이다.

겉감과 안감사이에 솜을 넣고 날염된 와당 문양 선을 따라 금사와 색실로 누빈 후에 전체적으로 1cm 간격으로 하여 세로 또는 가로로 누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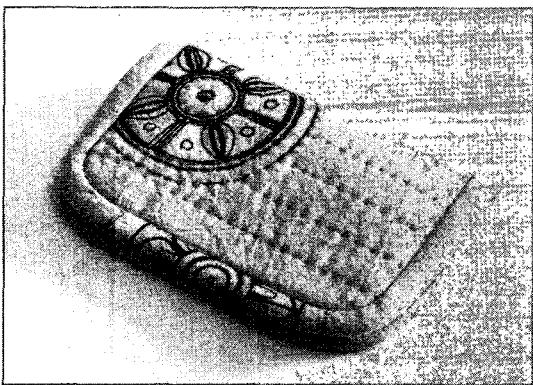
## 2) 와당문 명함집 I, II

명함집은 명함을 넣을수 있는 주머니로 처음 만난사람들과 명함을 주고 받을 때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것이다.



【작품 2-①】 와당문 명함집 I

소재: 광목(자초, 꼭두서니 염색)  
기법: 손누비 크기: 13.2cm×9cm



【작품 2-②】 와당문 명함집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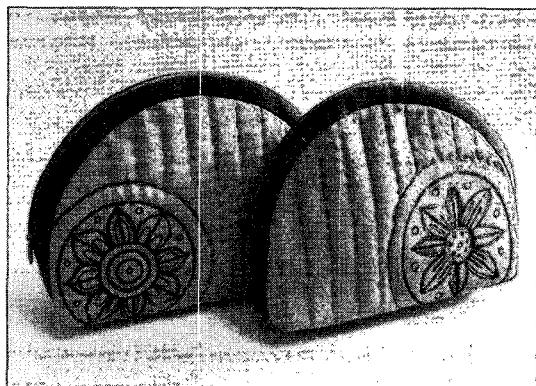
소재: 광목(자초, 꼭두서니, 오배자 염색)  
기법: 손누비 크기: 13cm×10cm

본 작품【작품2-①, 작품2-②】은 자초, 꼭두서니로 염색한 광목을 소재로 고구려 와당 문양을 날염한 명함집이다.

겉감과 안감사이에 누비솜을 넣고 날염된 와당 문양 선을 따라 금사와 색실로 누빈 후에 가로로 1cm 간격으로 누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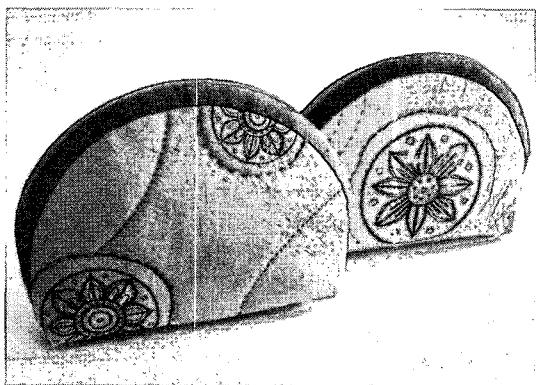
## 3) 와당문 파우치 I, II

조그마한 물건이나 화장품 등을 정리해서 넣을 수 있는 미니사이즈의 케이스를 총칭해서 파우치라 부른다.



【작품 3-①】 와당문 파우치 I

소재: 광목(괴화, 꼭두서니 염색)  
기법: 손누비 크기: 18cm×12.5cm



【작품 3-②】 와당문 파우치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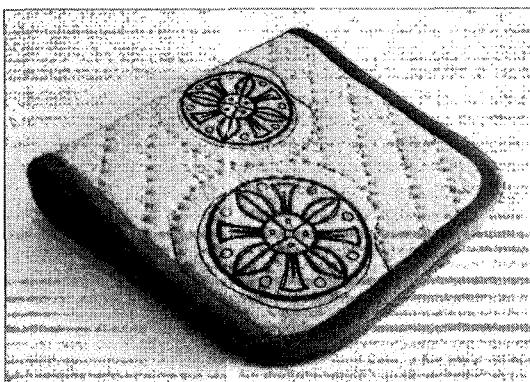
소재: 광목(오배자, 양파껍질, 소목 염색)  
기법: 손누비 크기: 18cm×12.5cm

본 작품【작품3-①, 작품3-②】은 화장품이나 디지털카메라 등 작은 생활용품을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로 누비가 되어 있어 활용성이 크다.

소재는 괴화, 꼭두서니, 소목으로 염색한 광목에 고구려 와당 문양을 날염하였으며, 결감과 안감사이에 누비솜을 넣고 와당 문양 선을 따라 금사와 색실로 누빈 후에 1.5cm 간격으로 세로로 누비거나 곡선으로 누볐다.

#### 4) 와당문 CD 케이스

요즘 많이 사용하는 CD를 넣어 보관할수 있는 케이스로 현대와 전통의 만남이라 할수 있겠다.



【작품 4】 와당문 CD 케이스

소재: 광목(괴화, 소목 염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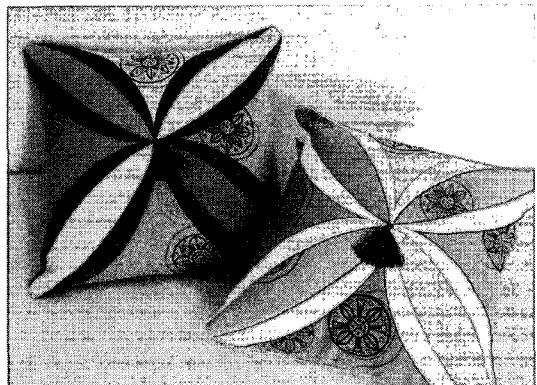
기법: 손누비 크기: 16cm×17.5cm

본 작품【작품 4】은 괴화, 소목으로 염색한 광목에 고구려 와당 문양을 날염하였으며, 결감과 안감사이에 누비솜을 넣고 와당 문양 선을 따라 색실로 누빈 후에 2cm 간격으로 사선으로 누볐다.

#### 5) 와당문 쿠션

앤틱스러운 의자나 쇼파에 올려놓으면 짙어울릴 것 같은 와당문 쿠션이다.

본 작품【작품 5】은 괴화, 꼭두서니, 밤껍질, 소목, 양파껍질, 오배자, 자초 등으로 염색한 광목에 고구려 와당 문양을 날염한 후, 우리 전통 조각보 중에서 여의주문보 만드는 방법을 응용한 작품이다.



【작품 5】 와당문 쿠션

소재: 광목(괴화, 꼭두서니, 밤껍질, 소목, 양파껍질, 오배자, 자초염색)

기법: 공그르기 크기: 40cm×40cm

#### 6) 와당문 가방

본 작품【작품 6】은 고구려 와당문양과 전통 조각보를 응용하여 만든 실용적인 누비 가방 이다. 사용된 소재로는 괴화, 꼭두서니, 오배자, 자초 등 여러



【작품 6】 와당문 가방

소재: 광목(괴화, 꼭두서니, 오배자, 자초염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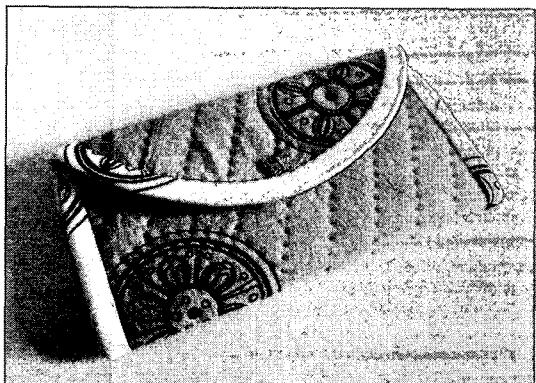
기법: 손누비 크기: 35cm×33.5cm

가지 색으로 염색한 광목에 와당문양을 날염하였다.

와당문양이 날염된 갖가지 색상의 조각천을 이어 붙인 후, 누비솜과 안감을 대고 문양 선에 따라 금사와 색실을 사용하여 손누비 하였다.

### 7) 와당문 지갑

본 작품【작품 7】은 자초로 염색한 광목에 고구려 와당 문양을 날염한 누비지갑이다. 걸감과 안감 사이에 누비솜을 넣고 날염된 와당 문양 선을 따라 색실로 누빈 후에 전체적으로 2cm 간격으로 하여 사선으로 손누비 하였다.



【작품 7】 와당문 지갑

소재: 광목(자초 염색)

기법: 손누비 크기: 20.5cm×11cm

### 8) 와당문 조끼

본 작품【작품 8】은 오배자와 소목으로 염색한 광목에 고구려 와당 문양을 날염한 누비 조끼로, 조선시대 배자를 응용하여 앞길이와 뒷길이에 차이를 두었으며, 옆선을 트여 활동성을 주었다.

걸감과 안감사이에 누비솜을 넣고 날염된 와당 문양 선을 따라 누빈 후에 전체적으로 3cm 간격으로 하여 세로로 손누비 하였다.

캐주얼한 청바지나 정장 스커트 등 어느 옷에 착용하여도 잘 어울릴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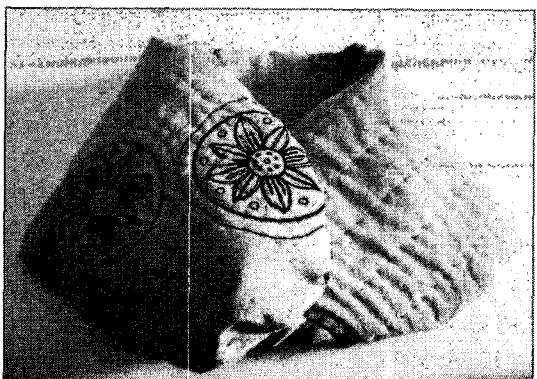
【작품 8】 와당문 조끼

소재: 광목(오배자, 소목 염색)

기법: 손누비 크기: 45cm(앞)×51cm(뒤)

### 9) 와당문 머플러

본 작품【작품 9】은 꼭두서니로 염색한 광목에 고구려 와당 문양을 날염한 짧은 누비 머플러이다. 일반적으로 긴 머플러와는 다르게 목둘레에 맞는 짧은 머플러로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



【작품 9】 와당문 머플러

소재: 광목(꼭두서니 염색)

기법: 손누비 크기: 73cm×17.5cm

겉감 한쪽 면에 접착 누비솜을 대고 날염된 와당 문양 선을 따라 색실로 누빈 후에 전체적으로 2cm 간격으로 누볐다. 양쪽 끝에는 단추와 단추고리를 달아 여밀수 있도록 하였다.

#### IV. 결론

첫째, 고구려 와당 문양은 암막새는 당초문(唐草紋)이 수막새는 연화문(蓮花紋)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양식적인 변화도 가장 풍부하였다.

고구려 와당에서 보이는 연화문의 특징은 자방이 단순하고 형태가 대담하며 꽃잎의 뿌리가 둥글고 끝이 뾰족하게 도드라지도록 표현하여 그 양식이 매우 날카롭다.

고구려의 연화문은 대체로 도식적이면서 도안적인 구성으로 간결하면서도 간명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시대적인 차이를 보이며, 다양한 변화 양식을 보여주었다.

둘째, 고구려 연화문와당 5가지를 도식화 하여 실크스크린 작업을 했으며,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였다. 소재는 광복을 이용하여 천연염색(침염, 날염)하였다.

셋째, 문화상품으로 개발 제작된 작품은 카드집, 명함집, 파우치, CD케이스, 지갑, 가방, 쿠션, 조끼, 머플러 등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소품을 중심으로 총 16점을 실물 제작하였다.

한 나라의 전통과 문화의 숨결이 배어있는 문화 상품은 문화적 특색과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그 나라의 이미지와 상품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우리의 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상품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구려의 와당문양과 실용소품의 접목은 전통의 재창조와 더불어 현대적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전통문양을 응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문화상품을 개발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역사의 숨결가득한 고구려 와당 展 (2005.9.21-12.17). 경희대 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 2) 申榮勳 (1976). 박물관 신문. 제57호. 국립중앙박물관
- 3) 이기문 감수 (2001). 새 국어사전. 두산동아. p. 1730.
- 4) 임영주 (1998). 한국문양사. 서울: 미진사, p. 216.
- 5)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2000). 新羅瓦塼. 국립경주박물관. 서울: 삼화인쇄, p. 232.
- 6) 上揭書. p. 232.
- 7) 송현주 (1998). 고구려 와당(瓦當)문양을 응용한 넥타이 직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 8) 金龍鎮 (1983). 韓國民俗工藝史. 서울: 학문사, p. 41.
- 9) 박진보 (1988). 三國時代 瓦當에 나타난 蓮花紋의 造形性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 10) 泰弘燮 (1974). 한국미술전집 3. 서울: 동화출판사, p. 160.
- 11) 강우방 (2000). 韓國瓦當藝術論序說. 新羅瓦塼, p. 421.
- 12) 박진보 (1988). 三國時代 瓦當에 나타난 蓮花紋의 造形性 비교연구. pp. 6-10.
- 13)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05년 5월에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제시한 고구려 와당 16가지 문양 중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문양을 5가지 체크하도록 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체크되어 있는 문양 순서대로 5가지를 선택하였다.
- 14) 광복은 면직물로 균래 홀이불, 속옷, 베선 등에 회계 표백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옷감이었다.
- 15) 김정호, 이미석 (2004). 천연염색 규방공예.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pp. 32-35.
- 16) 上揭書. pp. 88-89.